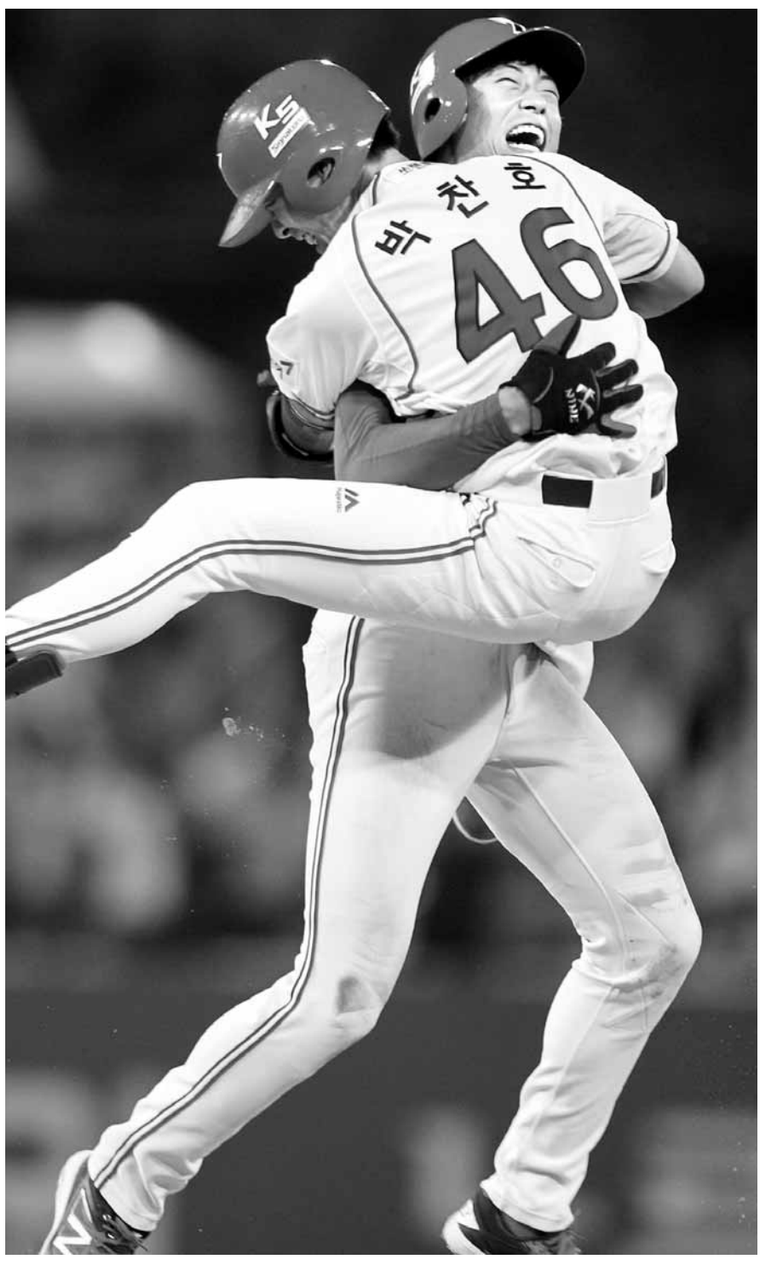

2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프로야구 KIA 타이거스 대 한화 이글스 경기 9회말 2사 만루에서 KIA 박찬호가 끝내기 안타를 친 후 오준혁과 포옹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7연승 호랑이 군단, 비결은 신구조화

KIA 박찬호 끝내기 안타승

선배 중심축 신인들 폭풍성장

신구조화가 '호랑이 군단'의 힘이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일 올 시즌 세 번째 끝내기 승을 거뒀다.

이날 KIA는 선발 지크가 1회에만 4실점을 하는 등 2.2이닝 11개의 피안타 8실점(7자책)으로 무너지면서 연승 중단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박준표-고효준-한기준-심동섭-최영필-김광수를 투입하면서 물량 공세로 마운드를 지킨 뒤, 8-9로 뒤진 9회말 짜릿한 끝내기 승을 연출했다.

필과 나지완의 연속 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1·2루에서 이범호의 적시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KIA는 2사 만루에서 나온 박찬호의 끝내기 안타로 4시간26분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승리로 KIA는 올 시즌 팀 최다 연승 기록인 6연승을 넘어 7연승까지 기록했다. 2013년 6월 이후 기록된 KIA의 첫 7연승이기도 했다.

타선을 움직이고 있는 신예 선수들의 활약과 묵묵한 마운드 베테랑이 엮어낸 승리였다.

지크가 1회 4실점을 했지만 KIA는 이어진 공격에서 김호령의 볼넷과 노수광의 안타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8번 오준혁과 9번 강한울의 적시타를 묶어 첫 공격을 6득점으로 장식했다.

경험 많은 중심타자들과 함께 신예 선수들이 부지런히 공세를 펼치면서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경기를 붙잡았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천덕꾸러기' 박찬호가 선배들을 웃게 했다.

지난 7월9일 두산전에서 끝내기 실책을 기록했던 막내 박찬호가 이번에는 끝내기 쇼의 주인공이 됐다. 경기가 끝난 후 눈물을 쏟아낼 정도로 고졸 3년차 어린 선수에게는 의미가 있던 안타였다. 수비로 눈길을 끈 박찬호이지만 올 시즌에는 수비에서도 실수 연발을 하면서 마음 고생을 했다. 타격에서도 이렇다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만큼 박찬호에게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이다.

실수와 경쟁 속에 성장을 하면 타선을 움직이고 있는 신예 선수들이다. 선배들도 이런 후배들이 고맙다.

주장 이범호는 3일 "어제 큰 경기를 했다. 어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 체력적으로 내가 많이 힘든데 그걸 어린 선수들이 잘 만회해주고 있다.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모습이 좋다"며 "(김)호령, (노)수광이는 경기가 끝난 후 밸런스가 안 좋으면 방망이를 치고 가더라. 시합에 안 나가는 애들도 그걸 보면 나도 더 해야겠다 눈치도 보고 달라지는 것 같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마운드에서는 베테랑의 책임감이 돋보였다.

8-9로 뒤진 9회 김광수가 마운드에 올랐다. 1점차의 승부에서 김광수가 첫 타자 로사리오를 상대로 2B-2S에서 헛스윙을 유도했다. 그러나 공이 빠지면서 낫아웃 상황이 됐고, 공보다 로사리오가 먼저 1루로 향했다. 하지만 베테랑 김광수는 침착하게 연속 삼진을 잡아낸 뒤 우익수 플라이로 이닝을 종료하면서 끝내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광수는 "내가 사인 미스로 실수를 해서 주자를 내보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하려고 했다. 우리 불펜 전력이 나쁜 것은 아닌데 좋지 못할 때 몰아서 점수를 주는 모습이다. (이번 주가) 승부처인데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 형들이 고생을 하겠다"고 베테랑의 책임감을 말했다.

알차게 성장하고 있는 신예 선수들의 힘과 베테랑의 묵직한 책임감이 KIA의 여름 반전극을 연출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눈물 펑펑 박찬호 "세러모니 준비했는데"

덕아웃 톡·톡

▲세러모니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 끝내기 현장에서 유난한 세러모니로 눈길을 끌던 박찬호다. 그러나 2일에는 박찬호가 끝내기의 주인공이 되어 선배들이 뿌리는 시원한 물을 맞았다. "세러모니하려고 물총에 물도 담아놓고 준비를 했었다"고 웃은 박찬호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생각이었다. 이상하게 긴장이 안 됐다. 뭔가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말은 씩씩하게 했지만 박찬호는 "늘 상상을 하던 순간인데 막상 경험하니 울컥했다"며 덕아웃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공이 너무 빨라 = 2일 끝내기 승리에는 이범호의 귀한 동점타가 있었다. 이날 한화는 9회초 선발 요원인 카스티요를 출격시키는 승부수를 띄었다. 카스티요는 첫 공부터 154㎞를 찍으며 KIA 타자들을 압박했지만 필과 나지완이 연속 안타로 무사 1·2루를 만들었다. 이범호도 초구를 공략, 동점을 이끌었다. 3일 동점타 상황에 대해 묻자 "공이 너무 빨라"라는 말로 입을 연 이범호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카운트 싸움) 뒤로 가면 불리하니까 공격적으로 쳤다. 번트 사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아서 공격적으로 하라는 주문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나는 쟤가 놀고 있는 게 싫어 = 김주찬의 부상 공백이 싫은 단짝 이범호다. 이유는 '같이 고생을 안 해서'. 견갑골 미세골절을 입은 김주찬은 지난 2일 1군에 합류해 훈련을 시작했다. 이범호는 3일 훈련 시간에 "나는 쟤(김주찬)가 놀고 있는 게 싫어. 같이 고생을 해야 한다"고 말해 덕아웃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이범호는 "연승 끊어지면 돌아오겠다고 하더라"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큰 영향이 없기는 하다. 안 하던 수비를 하겠다고 외야에서 펑고를 받고 있지 않으냐"고 외야를 가리키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웃겼다.

▲완벽하고 강하게 막고 싶어요 = KIA 선수로 새로운 출발을 한 고효준은 "생각했던 50%도 못 했다"며 자신의 첫 등판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고효준은 2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지크-박준표에 이어 등판해 1이닝을 피안타 없이 무실점으로 막았다. 하지만 볼넷 하나와 폭투도 기록을 했다. 고효준은 "제 2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좋았던 시절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다. 뭔가 더 간절함도 있고, 확실하게 이닝을 끝내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2루타로 역전승 주인공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결승타를 날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강정호는 3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터너 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방문 경기에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한 강정호는 타율 0.236을 유지했다.

강정호의 첫 타석은 병살타였다. 2회초 무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간 강정호는 2루수 앞 땅볼을 쳤고, 피츠버그는 아웃카운트가 한꺼번에 2개 올라갔다.

5회초 두 번째 타석에서 3루수 땅볼로 물러난 강정호는 팀이 2-2로 동점을 만든 6회초 1사 1, 2루에서 타석에 등장했다.

강정호는 좌익수 쪽 2루타를 터트렸고, 2루에 있던 맷 조이스가 홈을 밟으며 이날 결승타가 됐다. 2루에 있던 강정호는 애덤 프레이저의 안타 때 득점까지 올렸다. 피츠버그는 5-3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오승환, ML 첫 끝내기 홈런 허용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사진)이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끝내기 홈런을 허용했다.

오승환은 3일 미국 프로야구(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경기에서 5-4로 앞선 8회말 무사 만루 위기에서 등판했다. 결과는 1.1이닝 3피안타(1피홈런) 3실점, 블론세이브와 함께 평균자책점은 2.14까지 올라갔다.

1점 차에 주자가 꽉 찬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오승환은 첫 번째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9회말은 힘겨웠다.

선두타자 조이 보토에게 우익수 앞 안타를 내준 오승환은 애덤 두발에게 좌중간 안타를 맞고 무사 1, 2루에 몰렸다. 브랜던 필립스를 뜬공으로 처리하고 위기를 넘기는 듯했지만, 스콧 셰블러에게 끝내기 3점 홈런을 허용했다. 오승환의 메이저리그 3번째 피홈런이며, 첫 끝내기 홈런 헌납이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해외 게재불가

8월 20일(토)

▲**광주금당산악회** 8월 20(토) 강원도 삼척 태백 육백산- 응봉산-신비한 익끼폭포,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3 : 20, 염주체육관 03 : 30, 한국병원앞 03 : 40, 문예회관후문 03 : 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4 : 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8월 21일(일)

▲**빛고을무지개산악회** 8월 21일(일) 남원 지리산 뱀사골, 염주체육관 07 : 00, 학동 증심사입구지하철역 3번출구 07 : 20, 광주역 07 : 40, 문예회관후문 07 : 45, 동광주웨딩프라자 07 : 50 ※다음카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 010 3620 2002

▲**광주요산회** 8월 21일(일) 경남 통영 연화도 연화봉 산행, 무각사 05 : 00, 문예정문 05 : 10, 광주역광장 05 : 20, 동광주홈 05 : 30 ※다음카페 광주요산회 ☎ 010 3641 7300, 010 8797 8177

8월 24일(수)

▲**뉴광주4050산악회** 8월 24일(수)~8월 27일(토) 무안~연길, 시간이 촉박 일리 신청하세요 ※다음카페 뉴광주4050산악회 ☎ 010 9221 4508

▲**광주청록산악회** 8월 24일(수) 경남 거창군 - 별유산(외상봉), 백운동로타리 07 : 50, 교원공제 회관 08 : 00,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후문 08 : 10, 동광주 IC 입구(농산물 경매장옆 버스승강장) 08 : 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98612 4504, 010 8766 0170

8월 28일(일)

▲**광주자연보전답사회** 8월 28일(일) 수락산(경기도 남양주시), 염주체육관 출발 05 : 00, 무등경기장 05 : 20, 광주 홈플러스 05 : 4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8월 28일(일)

▲**광주산가족산악회** 8월 28일(일) 완도 보길도 윤선도,송시열 유적지 섬 산행, 동광주홈 06 : 00, 대인광장 06 : 10, 염주체 06 : 30 ※다음카페 광주산가족산악회 ☎ 010 6886 9106

8월 31일(수)

▲**광주청록산악회** 8월 31일(수) 전북 진안군 - 천반산, 백운동로타리 07 : 50, 교원공제 회관 08 : 00,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후문 08 : 10, 동광주 IC 입구(농산물 경매장옆 버스승강장) 08 : 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98612 4504, 010 8766 0170

매월 1~3주(일)

▲**무등산무돌길문화학교** 무돌길 51.8km 완주 무료 탐방 무돌길 개척자의 안내 해설, 완주증 수여 ※다음카페 무등산무돌길문화학교 ☎ 010 8611 5724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심판

- 사건번호 : 2016느단381 상속한정승인
- 사 망 자 : 박종석(420320-XXXXXXX)
- 최후주소 :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도장고길 56
- 등록기준지 : 전남 신안군 증도면 대초길 41-2

위 망 박종석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6년 8월 4일

- 공고인 : 박현철
- 한정승인수리일 : 2016년 7월 28일
- 공고기간 : 2016. 8. 4 ~ 2016. 10. 5
- 신 고 처 : 박은수(010-4803-483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임의 개장할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일신리 산242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5. 묘지 연고자 :연락처를 알수 없음
6. 개장 방법 및 이유 : 화장처리 또는 변두리에 매장
7. 신 고 자 : 추가 분묘시 본공고와 동일함
8. 공 고 자 : 목포시 산정로 103번길 19-1 박 연 길 (010-9252-3929)

2016년 8월 4일

분 할 합 병 공 고

2016년 8월 2일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령기전 주식회사(이하"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대동전력(이하 "을")과 분할합병("갑"의 전기공사업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주제위께서도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8월 4일

(갑) 보령기전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09번길 8(석남동)
대표이사 정재용

(을) 주식회사 대동전력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고마제로 61
대표이사 장정단

분 할 합 병 공 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태산전력(주)(이하"갑"이라 한다)와 (주)태종전력(이하"을"이라 한다)과 대한전기(주)(이하"병"이라 한다)는 2016년 8월 3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과 "병"의전기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과"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 9제3항의 절차를 밟아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16년 8월 4일

(갑) 태산전력(주)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45길 27(흑석동)
대표이사 최 옥 순

(을) (주)태종전력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918,
주식회사케이티보은지사3층
대표이사 서 성 원

(병) 대한전기(주)
충북 제천시 내제로4길 7(명동)
대표이사 조 영 미

즐거운 영화 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1관	제이슨본
2관	부산행
3관	부산행/인천상륙작전
4관	제이슨본/빅/극장판요괴워치
5관	제이슨본
6관	부산행
9관	인천상륙작전
7관씨네커플	빅/부산행/인천상륙작전
8관씨네커플	부산행/인천상륙작전

단체 및 대관문의 : 070-4940-0523

MEGABOX | 하남점 메가박스

현재상영작	금주개봉작
제이슨본	터널
극장판요괴워치	덕혜옹주
빅	
부산행/빅	
인천상륙작전/아이스에이지/극장판요괴워치	

T멤버쉽 동반4인까지 2000원 할인
KTF, LGT 멤버쉽 본인 1000원 할인
현대M포인트 1인 2000포인트씩
2인까지 4000포인트 사용
(현대M 카드로 결제시 적용)

단체 및 대관문의 : 1544-0070

누르고→6→6→1→4→9단계별로 안내를 따라가며 누르세요

MEGABOX | 상무점 메가박스

1관	부산행
2관	인천상륙작전
3관	제이슨본
4관	부산행/빅
5관	제이슨본/나우유씨미2
6관	부산행/빅
7관	인천상륙작전/아이스에이지/극장판요괴워치
8관	제이슨본
9관	인천상륙작전
10관	부산행

단체 및 대관문의 : 1544-0070
T멤버쉽 동반4인까지 2000원 할인